자재값 급등에 인력난까지 '건설업계 비명'

코로나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 차질·중대재해법에 건설업 기피
광주·전남 건설사 웃돈 주고 인력 모셔가기 '스카웃' 경쟁 치열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일손은 부족한데 정작 일할 사람은 구하기 힘듭니다."

전남의 한 토목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존보다 현장에 투입할 인력은 더 많아졌는데, 일을 할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 곳곳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웃돈'을 주고 인력을 채용하는 사례도 빈번해 인건비 역시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단순 근로자는 물론, 기술인력과 현장을 책임질 소장급 등 관리자까지 모든 인력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인력을 서로 채우기 위해 최근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다른 회사 직원을 '스카웃'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건설현장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등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현장 인력부족까지 겹쳐 지역 건설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일손 부족 사태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외국인 인력이 건설현장 필수 자원이 되는 등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이후 근로자의 입국은 여전히 더뎌 인력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건설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2 건설 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건설현장의 외국인 인력 비율은 16.7% 수준으로 약 32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올해 건설근로자 내국인력 부족인원은 21만여명에 달한다.

또 오랫동안 일해왔던 숙련된 고령의 근로자들은 계속해 건설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지만, 젊은 연령의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업무를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중대재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의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면서 관리자급 인력들이 건설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겹친 것도 인력난 사태에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전남의 한 종합건설회사 대표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며 "현장의 간부급 직원들은 오히려 현장을 떠나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은 없고 공사기간은 맞춰야 하는 탓에 광주·전남 건설업계에서 최근 현장소장급 등 전문인력을 빼가기 위한 '스카웃'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보다 많은 급여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의 건설현장은 인력수급난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인력부족 사태가 국내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가 되자 수도권 현장 등 대형건설사들이 '웃돈'을 주고 인력을 채용해 기존 지방의 인력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주택건설회사 대표는 "경기도의 한 대기업 건설현장에서는 기존 14~16만원이던 단순 업무 근로자의 하루 일당을 18~19만원으로 높여준 것으로 안다"며 "숙식도 무료로 제공하는 탓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방으로는 아예 오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인력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건설업계의 인건비도 점차 오르는 분위기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알루미늄폼 시공 인건비는 최근 1년 전보다 30% 상당 올랐고, 재래식 형틀 작업 인건비도 15% 증가했다. 철근 시공도 10% 올랐다.

광주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 치솟고 인력부족으로 인건비마저 올라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다"며 "저가 수주 경쟁으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는 원청이 인건비와 원자재 값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당장 도산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중대재해법 1호 입건 삼표그룹 세무조사

국세청이 삼표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삼표그룹 본사에 조사4국 직원들을 보내 조사를 벌였다.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삼표그룹의 탈세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 산업재해다.

삼표산업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다른 제조·판매사와 함께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것이 과징금 부과 이유였다.

/연합뉴스

남악오룡 시티프라디움 분양

지상 25층 84㎡ 534세대…오늘 견본주택 오픈

시티건설은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들어설 '남악오룡 시티프라디움'의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남악오룡 시티프라디움은 남악신도시 오룡택지지구 36BL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7개 동, 534가구 규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남악신도시는 목포시 옥암동과 무안군 삼향·일로읍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전남지역 신흥 주거중심지로 꼽힌다.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며 1단계 사업을 통해 남악·옥암·오룡 3개 지구에 8만3000여명을 수용할 주거공간이 조성된다. 남악·옥암지구는 이미 개발이 끝나 오룡지구만 남은 상태다.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친 상태로 생활인프라 역시 빠르게 확충됐다. 특히 중심상업지구(예정) 최중심 입지에 단지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와 아울렛을 비롯한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통학 가능거리에 초·중·고교가 개교 예정인 데다, 교육특화시설인 '아카데미 빌리지'도 조성 계획이다. 오룡지구 외곽으로는 남창천과 영산강, 망모산, 수변공원(예정) 등 쾌적한 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KTX와 SRT 열차가 지나는 목포역과 목포종합버스터미널은 물론, 서해안·남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남악JC, 남악로를 통한 목포원도심과 대불산단 이동 등 교통여건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되고,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난 만 19세 이상의 전남, 광주 거주자라면 세대주 여부,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남악오룡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2 일대에 22일 문을 연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잘 나가던 '캐스퍼' 급제동…무슨 일이?

상하이 봉쇄로 부품공급 차질…광주글로벌모터스 나흘간 생산 중단

'경차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잘나가던 '캐스퍼'가 중국 상하이 봉쇄조치로 부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에 차질이 반복되는 등 '급제동'이 걸렸다.

21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따르면 GGM이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생산이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중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상하이가 봉쇄됨에 따라 중국에서 들여오는 '에어백 컨트롤 유니트(ACU)' 공급이 막혔고, 최근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이 원인이다.

GGM이 현재 하루 평균 200여대의 캐스퍼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약 800여대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GGM은 하루 생산분량의 부품은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22일 하루간 생산라인을 정상가동에 나서면서 200여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부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장 다음주부터 생산라인 가동 여부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앞서 GGM은 이달부터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현재의 22대 수준에서 25.7대까지 15% 이상 끌어올려 월평균 3900대에서 4500대로 생산능력을 늘렸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GGM이 지난해 9월부터 캐스퍼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부품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캐스퍼 누적 생산 5만대를 목표로 설정한 GGM의 계획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GM 관계자는 "22일 하루는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생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부품 공급이 재개되면 올해 누적 5만대 생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21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1층 행사장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 할인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디올 레이디백을 잡아라

광주은행 '쏠쏠한 마이 디지털적금' 가입 이벤트

광주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비대면 금융상품 '쏠쏠한 마이 디지털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행사 이름은 '디올 레이디백을 잡아라! 100일 이벤트'로, 오는 7월2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쏠쏠한 마이 디지털적금'에 월 10만원 이상 정액적립식 신규 가입하면 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이 상품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년제 또는 2년제로 가입할 수 있고,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에서 적립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는 정액적립식 연 2.00%(자유적립식 연 1.80%), 2년제는 정액적립식 연 2.20%(자유적립식 연 2.00%)가 주어진다.

상품서비스 안내 등에 동의하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광주은행 예·적금 계좌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연 0.20%포인트 금리가 우대된다.

이번 행사 1등에 당첨되면 명품 가방을 증정하고, 1인용 스마트TV와 3만원 상당 대형마트 상품권, 카카오페이 포인트 2000원권 등 총 3036명에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임통장 서비스와 비대면 담보대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에 헬스케어·신용관리·배달 등 외부 제휴 서비스를 확대한다. 외부 영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디지털화된 업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가상 영업점 및 홍보관 운영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해외 유명 브랜드 할인전

광주신세계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주말 낀 나흘 동안 '해외 유명 브랜드 할인전'을 벌인다.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나흘 동안 본관 1층 행사장에서 열린다.

광주신세계에 입점하지 않은 브랜드를 포함해 총 20여 곳이 참여한다.

준비된 물량은 30억여 원 규모로, 할인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신세계가 직매입하는 신발 브랜드 '분더샵 슈'는 기존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선보인다.

이외 참여 브랜드는 엠포리오 아르마니와 프라다, 톰브라운, 셀린느, 메종마르지엘라, 골든구스, 미우미우, 아미, 오일릴리, 라움, 빈스 등이다.

같은 기간 아동복 봉통과 갭키즈, 쁘띠빠또 등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

행사장에서 선보이는 브랜드에 한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대별로 5% 상당 상품권을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8.21 (+9.52)
↑	코스닥	929.68 (+0.75)
↓	금리 (국고채 3년)	2.927 (-0.030)
↑	환율 (USD)	1239.00 (+2.90)